

어느 '환경장사꾼'의 고백

崔普植 <조선일보 사회부기자>

얼마 전 공휴일 40대중반의 노총각인 A씨를 만난 적이 있었다. 명성만을 따지자면 그는 환경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제법 대중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편이었다. 한때 북한산에 케이블 카를 설치한다는 소문이 흘러나왔을 때 부터 그는 언론에 클로즈업됐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생계를 위해 대학교 앞에서 열었던 복사가게를 집어치우고 말그대로 끼니마저 걸러가며 케이블카설치반대운동에 뛰어들었다. 작년에는 아파트건설로 생사의 갈림길에 처했던 8백년 묵은 은행나무를 살리기위해 고목아래서 철야농성을 벌이던 그의 모습이 도하신문에 대문짝처럼 나기도 했다.

이날 전화를 걸고서 다짜고짜 북한산 도선사 아래에 살고 있는 A씨의 집을 찾아갔다. 뚜렷한 취재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산책겸 북한산 산자락을 걷는데 열중했던 것 같다. 길목에서 마주치는 휴일등산객들은 그에게 대부분 반색을 하고 인사를 건네왔다.

『A선생 참 인기가 좋으십니다.』 좀 짓궂게 그에게 말을 걸자, A씨는 진짜 열살 소년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요즘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때 솔직히 부담

스럽고 겁이 납니다』라고 그는 말문을 열었다. 그의 다음말이 가관이었다. 『나도 최근 부쩍 늘어난 환경장사꾼중 한 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장사꾼이라니?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북한산의 한 산모퉁이에서 나이 많은 사내의 고백을 들어야 했다.

『2,30대 시절에는 자연보호운동에 마치 환장한 놈처럼 뛰어다녔어요. 가정을 꾸리거나 재산을 모으는 일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누가 밥벌이를 걱정하는 어떤 종류의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습니니다. 언젠가는 북한산

개발반대운동을 벌이면서 하루종일 쫓쫓 굶고 차비가 없어 우이동계곡에서 광화문까지 걸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기보다는 뿌듯했습니다. 그러는동안 저에 대한 기사가 간간히 신문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준(準)텔런트급이 된 셈이었지요. 자연보호의 열정에 대한 일정의 댓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순수했던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정이 나를 움직이기 보다는 이름을 벌기위해 자연보호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얼마전 모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는 동



▲ 위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안 나는 대단한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열을 올렸습니다. 실제 난 요즘 하는 일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문을 추구하는 장사꾼이나 진배없지요?」

A씨가 자신의 말대로 장사꾼이라면(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지만) 참 서툰 장사꾼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그는 장사를 해도 남들에게 대부분 이익을 주고 자신에게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남기겠다고 늘 반성하는 희귀한 부류에 속할지 모른다. 이런 말을 자신있게 하는 것은 현재 환경장사를 하면서도 너무나 태연하게 처신해, 심지어 장사를 하는지 「봉사」를 하는지를 분간 못하게 하는 환경장사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환경장사꾼은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면서 더욱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환경운동가로서 명함을 내밀고 있다. 처음부터 환경장사꾼으로 출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명사대접을 통상받고 있는 이들은 언론매체에 단골로 기고를 하거나 세미나장에서 토론자로 참석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일반대중을 향해 지금의 환경이 여러분을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지당한 말이다. 이들의 정열적이고 무게실린 발언은 환경정책에 영향을 끼쳐왔고 일반인에게는 환경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들어와 이들이 사용하기를 즐기는 환경에 대한 경고성 발언은 어쩌다가 협박처럼 들릴 때도 있다는게 문제이다. 일례로 이들중에는 서울시대 소나무가 산

이들 환경장사꾼은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면서 더욱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명사대접을 통상받고 있는 이들은 언론매체에 단골로 기고를 하거나 세미나장에서 토론자로 참석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일반대중을 향해 지금의 환경이 여러분을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성비 때문에 8년 앞으로 다가온 2천년안에 사그리 말라죽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충 계산해보니 그럴 것이라는게 이같은 주장의 학문적 근거이다. 또 어떤 이들은 비이커안에 페놀액이나 시멘트 가루를 넣고 물고기가 죽어가는 실험을 하면서 어떤 지점의 공해현장을 터무니없이 설명하려는, 언론의 선정적인 성향을 역이용한 「깜짝쇼」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본의야 어땠던간에 환경에 대한 일종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어쩌면 환경장사의 수요를 넓히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의 환경장사는 거의 잡화상수준이다. 보따리를 풀었다 하면 비슷한 환경내용물이 각자의 보따리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내용물은 예전에 일부교수가 그랬듯이 대학강단에서 평생 울겨먹은 낡은 한 권의 공책처럼 환경에 대해 조그만 정보를 갖고 있는 일반소비자들에게 조차 시대

에 뒤쳐졌거나 따분한 것들이다. 심하게 말해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적신호를 보내 겁을 주는데 이력이 난 장사적 수완이 이들에게 지금의 명성을 유지하게 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환경과 괴에 대한 심도있는 해결방안이라든지 환경과 인간과의 친화도모에 가서는 이들에게 별로 도움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같은 현상은 언론매체상의 텔런트(다양한 방면에 재주가 능하다는 뜻임)전문가는 많아도 특정한분야에 대해 천착한 전문가는 전무한 현실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한 신문사동료의 표현대로 모두들 조명이 밝은 쪽으로만 쏠려, 둘째열 부터는 텅 비어있는 격이다. 한가지 실례만 들자. 가령 수질환경분야를 전공한 교수는 이분야의 현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그는 관련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대기, 소음, 폐기물분야는 물론 국제환경 외교에 까지 고루고루 전문가로 자처하고, 언론에 이름 석자를 내밀고 있는 한 우리환경은 공포의 대상이고 이를 팔아먹는 장사꾼이 넘쳐날 것은 예정된 결과나 다름없다.

이글이 어떤부분에 있어서는 혹 과장되었을 수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비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정치구호처럼 자주 들리고 환경 「인사」가 대거양산되고 있는 시절을 맞아 환경을 담당하게 된 기자장사꾼으로서 부쩍 생각하고 있는 주제임을 밝혀둔다. ◀